

‘첫 TV토론’ 이재명 42% 잘했다…김문수, 이준석에 밀려

<19%>

<28%>

NBS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
정권교체 55%·재창출 34% 응답…민주당 40%·국힘 31% 지지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본 유권자들이 선택한 가장 토론을 잘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가장 잘했다는 응답은 42%로 이준석 후보(28%)와 김 후보(19%)를 앞섰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46%, 김 후보는 32%, 이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대도 유보’(없음·모름·무응답)는 10%로 지난주(16%)보다 낮아졌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49%)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27%)보다 5%포인트 올랐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7%)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각각 81%, 50%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64%로 1위였다.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3%,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86%, 김 후보 지지층에서는 89%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와 상관 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67%로 김 후보(23%)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은 87%로 조사됐다. 가능한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 투표층은 9%로 지난주(적극 투표층 83%·소극 투표층 11%)보다 적극 투표층이 많아졌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 응답은 진보층에서 84%, 중도층에서 61%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정권 재창출 응답이 65%로 더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1%, 개혁신당 5%·조국혁신당 5%, 진보당 1% 순이었다.

각 후보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라)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77%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기록한 80%대의 지지율(광주 84.8%·전남 86.1%·전북 82.9%)에는 못 미쳤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TK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9%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26%)를 앞섰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받았던 지지율(대구 21.6%, 경북 23.8%)과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울·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3%, 이재명 후보가 36%를 기록해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지난주 이재명 후보가 40%로 김문수 후보(34%)를 앞섰던 결과가 역전된 것이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광주YWCA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2일 오전 동구 5·18민주광장 화하나무 앞에서 탈핵?기후 생명운동 등 6개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권자 캠페인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준석, 단일화 거부…“투표지에 기호 4번 선명할 것”

긴급 기자회견…국힘과 선 긋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에도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가 계속되자 더욱 명확히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이 후보는 “외부의 회유와 압력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호 4번 오른쪽 빈칸에 기표 용구로 꼭 눌러 찍어달라. 오늘과 내일에 투자는 가

장 효능감 있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아합하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노 전 대통령처럼 이번에는 이준석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전략적 선택의 시간이다. 곧 역전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나랏돈을 펄펄 써도 괜찮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의 세상아 아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이 분명하데도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오히려 바보라고 조롱하는 로마 황제 코모

두스와 같은 암군의 세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윤석열을 몰아냈더니 푸른 점퍼로 갈아입은 또 다른 윤석열, 다시 빨간 옷을 차려입은 작은 윤석열이 등장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정치 기적을 이뤘다고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협력하는 상식적 협치가 이뤄지는 세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아침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했듯 두 개의 거품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헌재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변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게나 중대하지 않고, 판단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민주 “국힘, 추잡한 ‘당권·단일화 거래’ 정황…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차기 당권을 대가로 보수 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제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의 늪, 내란의 바다, 부정부패 불궐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도 모자라 이번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의를 애국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즉각 고발 조치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소위 친윤은

지난 3년간 권력을 쥐고 실패한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인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권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동훈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계 인사”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여라’ 식의 말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엔에이치인터내셔널은 2025년 5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남해철강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남해철강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따라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주주 및 집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구주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주식회사엔에이치인터내셔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3층 (광산동, 안산빌딩)
사내이사 김 호 석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남해철강 주식회사(본사는 2025년 5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엔에이치인터내셔널이 본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본사는 해산하는 합병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따라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주주 및 집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내에 본사에 구주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남해철강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69-2
대표이사 김 호 석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발생·등록 해리**
호남고속도로 222km 22구에서 발생된 토석 48,249㎥ 상당,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잔재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총화량 연·경암 합계 비고
수량 m³ - - 48,249 48,249 산고계와 외
※ 잔남 화평군 언덕면 신계리 일원(상지위치는 현장설명서에 명시)
2. **현장명·발생·등록 및 입찰일시**(주소: 호남고속도로 222km 22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 2025년 06월 02일 14시
나. 입찰제출일: 2025년 06월 05일 14시
다. 개 찰 일 시 : 2025년 06월 05일 15시
라. 낙 찰 자 선 정 : 2025년 06월 10일 (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5일 후 낙찰자 발표)
3.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공개경쟁입찰, 단가입찰(1㎡당), 최고가 낙찰제
입찰자가 제시한 1㎡당 편식대(운반비 포함)가 최고인 입찰제 낙찰(예정자)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가격 입제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상차지를 기준으로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정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일반회사의 경우
1) 현장설명일 현재 공제채권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위거 공제채권법(산림공제채권법 또는 공제 채권 파생법)으로 등록한(자)계 공제 채권 때에 신고 수리 통보 받은(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가동) 가능한 크라사 장비 보유), 현장설명일 현재 개발행위 준준거리를 득한 야적장을 확보하여 상시 반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및 업권자(가) 동업(가)하고, 야적장은 동일인(동일법인 또는 동일계열사) 명의의 야적장일 경우와 임대 야적장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임대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한다
3)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시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공이 채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시 제출한 사업장(야적장 또는 공제채권사)은 발생일 반입, 공제채권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6)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시 제출하여야 한다.(야적장 및 공제 채권사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원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 최소 700㎡이상, 필 25,000㎡이상 발생면 반입이 가능한지
※ 2025년 6월30일까지 약 7,000㎡ 반출 완료 가능한다
나. 중대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공이 채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야적장 및 공제 채권사실)은 발생일 반입, 공제채권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일 참석시 제출)
가. 공제채권사실 또는 사도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공제 채권 파생법 사업장 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인감도장 지참) 1부
라. 시·군·자치단체세 납부증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원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를 미지급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접수인 가능)
· 매 각 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인 : 동부건설(전남 무안군 무안읍 백로로 301)
· 기 타 문 의 : 시공사 동부건설(호남 061-454-2200
김리던 (내선 061-453-4537)
2025년 5월 23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